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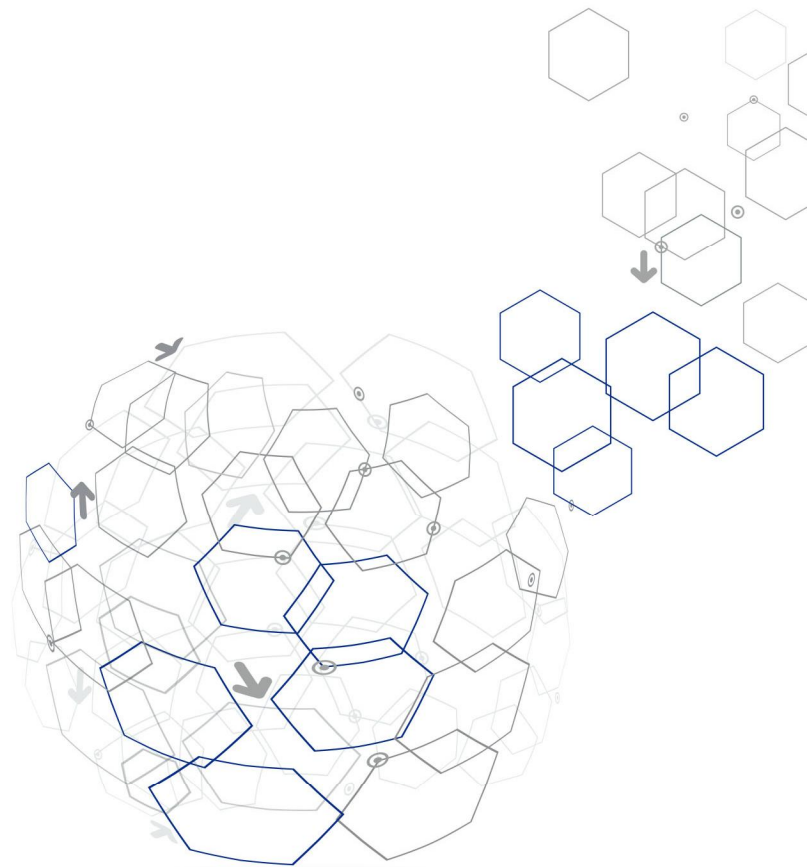
2020

CERIK 하이라이트

9.14

국가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예산 확대

-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건설투자 감소 전망
- 2020~2021년 취업자 수 3.8만~9.6만명 감소, 서민 일자리 위축 심각
- 2021년 SOC 예산, 올해 대비 5조원 이상 증액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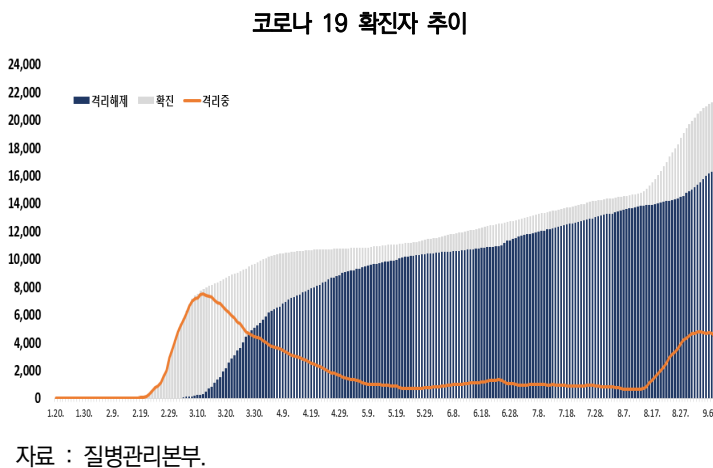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 피해 상황 심각

- ◎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올해 1월 20일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2만 1,743명, 346명(9월 10일 0시 기준)에 달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각종 교습소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등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 지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지역에 따라 단기간에 700mm의 집중호우로 사망 38명, 실종 4명, 부상 8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5,374세대 9,472명의 이재민, 4만 8,117건의 시설 피해¹⁾가 발생함.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4개 태풍(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침. 특히,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실종 2명, 부상 5명, 총 785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9월 7일 기준)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건설투자 감소할 듯

-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과 세계경제 위축으로 국내 경제의 침체가 예상됨. 한국은행은 최근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의 -0.2%보다 1.1%p 하락한 -1.3%로 전망함.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기관	KDI	IMF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0.2%	-2.1%	-2.3%	-1.0	-0.5%	-1.3%

자료 : 각 기관 발표치 종합.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8. 22.(토) 17:00 기준

- ◎ 한국은행의 기본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건설투자를 전망하면 2020년 260.8조원(-0.8%), 2021년 259.8조원(-0.4%)으로 2020~2021년에 총 3.1조원 감소 예상

한국은행이 예상한 시나리오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전년 대비, %)	가정
기본 시나리오	(2020년) -1.3, (2021년) +2.8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기간이 연초와 비슷하게 지속, 이후에는 간헐적·국지적 확산 전제
비관 시나리오	(2020년) -2.2, (2021년) +1.2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기간 연말까지 지속

자료 : 한국은행(2020.8.27), 「경제전망(2020.8월) 보도자료」, 14p.

- ◎ 한국은행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건설투자를 전망하면 2020년 259조원(-1.5%), 2021년 256.8조원(-1.5%)으로 2020~2021년에 총 7.9조원 감소 예상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에 따른 건설투자 변화 시나리오

구분	2019년	기본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2020년 ^e	2021년 ^e	2020년 ^e	2021년 ^e
GDP 성장률(%)	2.0	-1.3	2.8	-2.2	1.2
건설투자(조원)	262.9	260.8	259.8	259.0	256.8
전년 대비 증감액(조원)	-6.9	-2.1	-1.0	-3.9	-4.0
전년 대비 증감률(%)	-2.5	-0.8	-0.4	-1.5	-1.5
건설투자 성장기여도(%p)	-0.4	-0.1	-0.1	-0.2	-0.1
건설투자 성장기여율(%)	-18.6	-9.0	-2.0	-9.6	-10.2

주 : GDP 성장률 변화에 따른 건설투자 증감률 변화는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4.21”의 분석모형 GDP 성장률 증감률 계수 0.7339로 계산함.)

- ◎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투자는 2018년 실질금액 기준³⁾으로 2020~2021년에 3.4조~8.5조원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올해 겨울까지 지속되면 건설투자가 1.9조원 추가로 감소하고, 2021년에 3.2조원이 더 감소해 총 5.1조원의 건설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 규모 추정치

(단위 : 2018년 가격 기준, 십억원)

구분	건설투자 감소 규모 추정		
	2020년	2021년	합계
기본 시나리오	-2,275.5	-1,080.0	-3,355.6
비관 시나리오	-4,177.0	-4,273.4	-8,450.4
차이	-1,901.5	-3,193.3	-5,094.8

주 : 2018년 금액 기준은 한국은행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2) 다른 변수들은 변화가 없고 GDP 성장률만 변한 것을 감안한 수치로, 실질금리 등 다른 변수의 변화는 감안하지 않은 수치임.

3) 2018년 실질금액 기준을 사용한 것은 파급효과 분석에 2018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기 때문임. 해당 금액을 2020년도 금액으로 전환시 3.3조~8.2조원임.



건설투자 감소는 전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생산 감소 유발

◎ 2020~2021년 예상되는 건설투자 감소로 산업생산액은 약 6.7조~16.9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로 인해 추정되는 건설투자 감소 규모인 3.4조~8.5조원에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⁴⁾를 곱해 건설투자 축소가 전 산업의 직간접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면 최소 6.7조원, 최대 16.9조원의 산업생산액 감소 효과가 발생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건설투자 위축으로 발생하는 산업별 생산액

(단위 : 조원)

구분	건설투자 생산유발계수	생산 감소액(조원)		
		기본 시나리오(a)	비관 시나리오(b)	차이(b-a)
건설	1.002	3.36	8.47	5.11
1차 금속제품	0.102	0.34	0.86	0.52
비금속광물제품	0.098	0.33	0.83	0.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98	0.33	0.82	0.50
금속가공제품	0.093	0.31	0.79	0.47
화학제품	0.080	0.27	0.67	0.41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062	0.21	0.52	0.31
전기장비	0.051	0.17	0.43	0.26
사업지원서비스	0.050	0.17	0.42	0.25
운송서비스	0.044	0.15	0.37	0.22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40	0.14	0.34	0.21
석탄 및 석유제품	0.030	0.10	0.26	0.15
전력, 가스 및 증기	0.030	0.10	0.26	0.15
기타	0.23	0.76	1.90	1.15
합계	2.02	6.73	16.94	10.21

주 : 2018년도 금액 기준으로 추정.

자료 : 한국은행, "2018년 산업연관표(2015년 기준 연장표 기준)".



건설투자 감소로 일자리 축소 불가피, 특히 서민 일자리 감소 심각

◎ 2020~2021년 예상되는 건설투자 축소로 취업자 수는 약 3.8만~9.6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직종별로 보면 단순 노무자와 기능원 같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상용 근무자는 최소 1.7만명에서 최대 4.4만명, 비상용 근무자는 최소 2.1만명에서 최대 5.2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직종별로 볼 때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비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와 같은 직종의 취업자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건설투자 축소는 비상용 근무자, 단순 노무 종사자와 같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많이 줄여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분석됨.

4)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 효과의 크기를 합산한 값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건설투자 위축시 취업자 수 감소 효과 - 취업 형태별

(단위 : 천명)

구분	합계	상용 근무자	비상용 근무자			
			임시·일용	자영·무급		
건설 취업유발계수	11.41	5.26	6.15	3.61	2.54	
취업자 감소	일반 시나리오	38.3	17.6	20.6	12.1	8.5
	비관 시나리오	96.4	44.4	52.0	30.5	21.5
	차이	58.1	26.8	31.3	18.4	13.0

주 : 2018년도 금액 기준으로 추정함.

자료 : 한국은행, "2018년 산업연관표(2015년 기준 연장표 기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건설투자 위축시 취업자 수 감소 효과 - 직종별

(단위 : 천명)

구분	합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 취업유발계수	11.41	0.52	1.27	1.62	0.24	0.88	0.16	3.57	1.45	1.71	
취업자 감소	일반 시나리오	38.3	1.7	4.2	5.4	0.8	2.9	0.5	12.0	4.9	5.7
	비관 시나리오	96.4	4.4	10.7	13.7	2.0	7.4	1.3	30.2	12.2	14.5
	차이	58.1	2.6	6.5	8.3	1.2	4.5	0.8	18.2	7.4	8.7

주 : 한국은행 2018년 산업연관표의 건설부문 취업유발계수를 "2010년 산업연관표"의 학력별·직업별 취업유발계수표의 비율을 활용해 세부 유발계수를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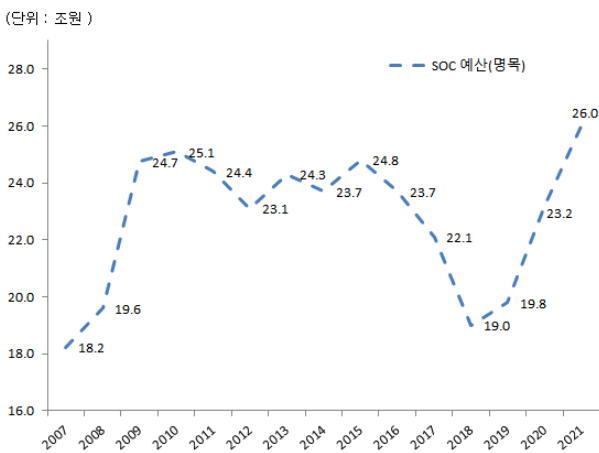
국가 재난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자 확대해야

- ◎ 해외 주요국들은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함.
 - 미국은 그동안 4차례의 「긴급재정지원법」 제정을 통한 ‘긴급구호’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전환한 가운데 지난 7월 Green New Deal 결의안을 구체화한 인프라 재건 법안인 *Moving Forward Act*(1.5조 달러 규모)가 하원 의회를 통과함.
 - 중국은 경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정 적자율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림(전년 대비 중앙정부 224억 위안, 지방정부 특별채 1조 6,000억 위안 증액).
- ◎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바,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함.
 - 2018년 공공 의료기관은 총 224개소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 비중은 5.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공공 의료기관의 병상은 총 6만 3,924개이나 병상 수 비중은 10.0%로 역시 OECD 국가 대비 최하위 수준임.
- ◎ 향후 우리나라는 빈번한 풍수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바,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시설물 투자가 시급함.
 - 노후 상하수도는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되는 경우 누수와 이로 인한 싱크홀(지반 함몰)이 발생하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상습 침수지역의 대심도 빗물 저류 배수터널, 우수 저류시설 등의 확충과 소하천 정비 등도 긴요
 - 풍수해 관련 시설물의 고령화(30년 이상) 비율 : 댐 63.5%, 상하수도 21.6%, 하천 21.4%, 교량 19.1%(2020.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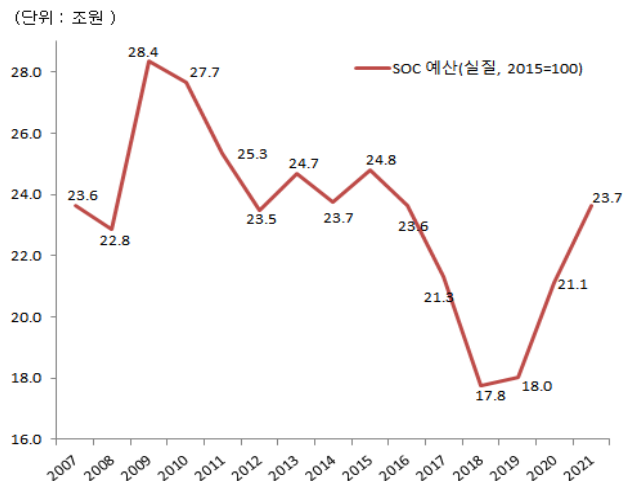
2021년 SOC 예산,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증액 필요

- ◎ 현재와 같이 민간소비와 수출 등이 감소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자본적 지출 중심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함.
 - 건설부문에서 파급되는 산업연관 및 고용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최소화하여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위축에 대비해야 함.
 -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빈번한 태풍 등 풍수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바, 재해·재난 대비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노후 인프라의 성능 개선 등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전략 투자도 추진되어야 함.
- ◎ 코로나19 재확산이 잡히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SOC 예산을 2020년 대비 5조원 이상 증액한 28조원 수준으로 늘려야 함.
 -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금년 겨울까지 지속되면 건설투자가 1.9조원 추가로 감소하고, 2021년에도 3.2조원이 더 감소해 총 5.1조원의 건설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19 확산세가 금년 겨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년에 다시 확산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한다면 필요한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8조원 증액된 26.0조원으로 계획함. 이러한 예산 규모는 명목금액으로 최대 금액이지만 실질금액(201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7조원 수준에 그침.
 - 2007~2008년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2009~2010년 SOC 예산은 27.7조~28.4조원 수준이었음.

SOC 예산 명목 금액



SOC 예산 실질금액(2015년 기준)



주 : 실질가격은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으며, 2020~2021년의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한다는 가정(2020년 +0.4%, 2021년 +1.0%) 아래 계산함.

자료 : 기획재정부.

박철한(부연구위원·igata99@cerik.re.kr)
 엄근용(부연구위원·kyeom@cerik.re.kr)
 박용석(연구위원·yspark@cerik.re.kr)